

日本語의 「非情物の 二受動文」에 대해서

- 문 형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신 석 기*

目 次

0. 처음에
 1. 日本語에 있어서의 「非情物の 二受動文」
 2. 実態調査
 3. 複文에 있어서의 節의 背景化와 前景化
 4. 끝맺음
-

0. 처음에

지금까지 日本語의 受動文에 관해서는, 방대한 양의 연구성과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受動文에 관한 연구의 커다란 흐름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그 흐름의 하나는, 形式主義에 입각한 生成文法の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연구되어진 것으로, 주로 文의 통사현상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文의 基底構造에 있는 能動文에서 구문변환 과정을 거쳐 表層構造에 있는 受動文으로의 생성에 주목하는 흐름이다.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은 形式主義에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아 연구의 비중이 낮았던, 文의 意味構造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 인지문법의 흐름이다. 인지문법에서는 인간이 외부세계를 인지하고 그 인지한 것을 언어화할 때의 과정을 밝히는 부분에 연구의 중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서 개략적으로 언급한 두 가지 흐름 중에서, 認知文法の 立場에 입각하여 日本語의 受動表現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受動表現 중에서 受動文의 主語의 위치에 非情物이 나타나고 그 동작주가 「二」로 표시되는 受動文(이하 「非情物の 二受動文」으로 부른다)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한다. 특히 고찰의 대상을 「非情物の 二受動文」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로 대부분 受動文에 관한 연구는 有情物이 주어로 표현되는 것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 건양대학교, 조교수, 일본어학

수동문의 주어인 대상물은, 동작주의 동작을 받아 이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有情物인 것이 가장 뚜렷하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대상이 되지 못한 非情物이 주어로 표현되는 受動文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유로는, 지금까지의 受動文에 관한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실제의 텍스트에 사용되는 受動文은 대부분 동작주를 동반하지 않고 표현되는 것이 일반 적인데¹⁾, 非情物이 주어가 되는 受動文에서 동작주가 표현되고 또한 그 표시형태가 「ニ」가 되는 「非情物のニ受動文」은 그 수가 한정적이고 또한 후술할 특이한 통사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受動文이 해당된다.

- (1) あの町は、日本軍に破壊された。
- (2) この雑誌は、10代の若者によく読まれている。
- (3) この論文は、チョムスキーに数回引用された。
- (4) このペンは、イギリスの文豪チャールズ・ディッケンズに何度も使用された(ものがある)。¹⁾
- (5) 浅田の反抗的な行為は クラスメートたちに褒めそやされた。(「闇の力」²⁾)

상기의 예문(1~5)는, 주어로 표현된 것은 모두 非情物이고, 그 동작주는 有情物로서 모두 동작주 표시가 「ニ」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와 같은 「非情의ニ受動文」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여 논하고자 한다. 특히 이와 같은 「非情의ニ受動文」이 상기의 예문과 같은 단문뿐만이 아니라 복문에 있어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를 고찰한다. 뒷 부분에서 논하겠지만 「非情의ニ受動文」이 단문과 복문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문에서의 이러한 양상에는 인지문법의 기본개념인 「図(Figure)」와 「地(Background)」 혹은 「前景化」와 「背景化」 등의 개념과 어떤 식으로 상응하여 표현되는지를 검토하여 지금까지 통사적인 특징의 연구와는 다른 각도에서 수동문을 바라보고자 한다.

1) 영어에 관한 연구로는 T, Givon의 『On Understanding Grammar』, 1979, p.66~p.76 참조. T, Givon(1979)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약 82%가 동작주가 없는 受動文으로 나타났고 약 18%가 동작주가 표시된 受動文이었다. 일본어에 관한 것은 拙稿 「受動文と談話」, 『日本学報』32輯, 1994, p. 119p 참조. 일본어의 경우도 영어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작주가 없는 受動文이 83%, 동작주가 있는 受動文이 17%로 나타나고 있다.

1) 예문 (1~3)은 각각 益岡隆志, 「日本語受動文の意味分析」, 『言語研究』82, 1982. p.55, p.57, p.58에서 인용함. 예문 (4)는 高見健一, 「機能的構文論による日英語比較」, くろしお出版 1995. p.99에서 인용함.

2) 『闇の力』 인터넷판, 佐野良二, 1996. (底本은 「闇の力」, 構想社, 佐野良二, 1996.)

1. 日本語에 있어서의 「非情物の 受動文」

상기의 예문(1~5)까지의 본고에서 말하는 「非情의 受動文」은 과연 일본어 고유의 표현인지 고유의 표현이 아닌지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가 여러 가지로 이루어졌다.

특히 久野(1978)에서 언급된 「共感度關係」³⁾이론에 비추어보아도 확실히 非情物이 受動文의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여 표현되는 것은 일본어 고유의 표현양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인간을 주어에 놓고 표현되는 형식이 일본어에 있어서는 보편적이고 非情物이 주어의 자리에서 표현되는 것은 서양어의 영향을 받아서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⁴⁾.

그렇지만 이에 대한 논의의 최종적인 입장은 金水(1991)⁵⁾에서 언급되었듯이, 결코 일본어에 非情의 受動文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金水(1991)에서는, 通時的인 관점에서 일본어의 非情의 受動文을 바라보았을 때, 일본어에 있어서 非情의 受動文은 일본어 고유의 표현이고 원래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점을 밝히고 있다. 단지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非情物의 受動文은 대체적으로 叙景文(지각된 상황을 묘사할 장면에서 사용되어지는 문으로 주로 동작의 결과가 존속하는 곳의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문)으로 사용되어졌던 점을 언급하고 있다⁶⁾.

(6) きぬのすそ、もなどは、みすのとにみなおしいだされたれば、との、はしのかたより 御らんじい
だして(枕草子、一〇四、一六二項)⁷⁾

(7) かみのうつくしげにそがれたるすゑも中く、ながきよりもこよなういまめかしきもの かなとあはれに
見給ふ(源氏、若紫、大系・一・一八四項)⁸⁾

그러나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平安時代の 仮名散文에 나타난 非情의 受動文은, 주로 「非情의 主語+非情의 動作主」의 受動文이던가 「有情의 主語+非情의 動作主」가 많았고 다음과 같은 현대어 예문과 같은 非情物의 受動文이 아니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8) その手紙は、太郎に破られた。

3) 久野가 말하는 공감도 관계란 「話者は 무생물보다는 인간에 시점을 두는 것이 용이하고, 또한 주어의 아닌 것보다는 주어 쪽의 시점을 취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는 이론이다

4) 이에 대한 논의를 전부 열거할 수 없으나 대표적으로 高見健一(1995) 117p에서는, 「~, 英語では 無生物を主語にして、人間を目的語(やby-phrase)などにする構文が頻繁に用いられるのに対し、日本語ではそのような構文が避けられ、できるだけ人間を主語にする構文が用いられる事実と~」라고 논하고 있다.

5) 金水敏, 「受動文の歴史についての一考察」, 『国語学』 164: p.1-14, 1991.

6) ibid. p.3~p.4

7) ibid. p.3에서 인용.

8) ibid. p.3에서 인용.

- (9) 金庫にしまっていた金が、秘書に 盗まれた。
- (10) 原案は、総務部長に 反対／無視された。
- (11(4))このペンは、イギリスの文豪チャールズ・ディッケンズに 何度も使用された(もので ある)。
- (12) 我が社のワープロは、作家の曾野綾子氏にも 愛用されています。9)

高見(1995)에서는, 일본어는 영어와 달리, 무생물이 受動文의 주어가 되는 것은 부적합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하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바른 수동문인데 반하여 이에 대한 일본어의 예문은 거의 비문에 가깝다.

- (13)??a. この部屋は、花子に掃除された。
 b. This room was cleaned by Mary.
- (14) * a. その車はいつも太郎に乗られている。
 b. The car is always driven by John.
- (15) * a. この絵は、花子に描かれた。
 b. This portrait was painted by Mary.

그러나 상기에서 인용한 金水(1991)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일본어에서도 非情物이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여 표현되는 受動文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또한 가령 다음 예문과 같이 동작주를 생략하거나, 동작주를 꼭 표현해야만 할 때는 「ニヨッテ」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6) この部屋はきれいに掃除された。
 (17) この部屋は花子によって掃除された。
 (18) この絵は、花子によって描かれた。

高見(1995)에서는, 상기의 일본어 예문 (13~15a)와 같은 문은, 久野(1978)에서 제안된 소위 말하는 共感度關係를 위반하였기에 비문에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久野(1978)에서 제안된 共感度關係란, 話者は 무생물보다는 인간에 시점을 두는 것이 용이하다는 「인간성의 시점계층」과 주어가 아닌 것보다는 주어 쪽의 시점을 취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는 「표층구조의 시점계층」간에는 그 시점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共感度關係에 근거하여, 예문 (13a, 14a, 15a)는 非情物이 주어로 표현된 문이기 때문에 시점의 일관성 면에서 논리적인 모순을 포함하고 있기에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9) ibid. p.94와 p.99에서 인용

이러한 공감도 관계를 위반한 受動文이 비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受動文이 「被害」や「恩恵」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상기의 예문 (8~10)), 「특징의 부여」(characterization)를 나타내거나 (상기의 예문(11~12))의 경우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高見(1995)에서 말하는 「특징의 부여」와 「被害·恩恵」 등의 개념은 이미 益岡(1982, 1987)등에서 제기된 것과 같은 「屬性叙述受動文」과 「受影受動文」 등의 개념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益岡(1982, 1987)에서는, 동작주의 표시형태가 「ニ」로 표시되는 문 중에서 受動文의 주격으로 표현되는 명사의 「屬性」을 나타내는 受動文을 「屬性叙述受動文」, 그리고 受動文의 주격으로 표현되는 명사가 동작주의 「동작」의 영향을 입는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受動文을 「受影受動文」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屬性叙述受動文」과 「受影受動文」을 구성하는 동기는, 원래 능동문의 대상물이었던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로 「昇格」하여 受動文의 주어로 표현되는, 즉 목적어에서 주어로의 「昇格」을 受動文 구성의 동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屬性叙述受動文」과 「受影受動文」은 어떤 형태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 특징은 受動文의 동작주가 「ニ」로 표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屬性叙述受動文」과 「受影受動文」과는 달리 원래의 능동문의 주어의 자리에 있었던 동작주가 주어의 자리에서 주어가 아닌 자리로 내려가는 즉 「降格」되는 「降格受動文」은, 동작주의 표시가 「ニ」로는 불가능하며, 항상 생략이 되거나 「ニヨッテ」라는 형태로 표시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9) あの町は日本軍に破壊された。
- (20) * あの町は日本軍に建設された。
- (21) あの町は(1900年に) 建設された。
- (22) あの町は日本軍によって建設された。
- (23) このメーカーのバットは、王選手に何度も使用された。

상기의 예문 (19)가 「受影受動文」에 해당하고, 예문(20)은 동작주의 표시가 「ニ」로 표시되지 못하고 생략되거나(예문(21)), 「ニヨッテ」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降格受動文」에 해당된다.

2. 實態調査

上記에서 개략적으로 검토한 「非情物の 受動文」이 과연 실제 텍스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며 또한 그 문의 양적인 분포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非情物の 受動文」을 실제의 텍스트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상기에서 인용한 예문들은 거의 필자에 의해 만들어진 예이고 또한 이러한 예문들이 단문의 예가 대부분이기에 실제의 텍스트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하 실제의 텍스트에 나타난 「非情物の 受動文」에 관한 양적·구조적 조사의 내용을 논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어의 실제 텍스트에서는 「非情物の 受動文」이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구문적으로도 「非情物の 受動文」은 단문구조에서는 나타나기 힘들고 복문의 종속절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출현 경향에는 동작주의 동작성과 대상물의 상태변화의 강약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3장에서 논하기로 하겠다¹⁰⁾.

실제의 텍스트조사에는 20개의 작품이 사용되었다. 텍스트의 종류로는, 소설을 위주로 하여 기행문, 일기, 학술논문 등이다. 이러한 20개의 작품에서 나타난 「非情物の 受動文」의 몇 개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4) まず、先に述べたように、新しい市場経済システムがうまく機能するようにするため
には、権力が集中していたほうが都合がよかったので、絶対主義は新興の都市商人たち
支持されました。とくにギルドや… (「グリゴリの捕縛」)
- (25(5))浅田の反抗的な行為はクラスメートたちに褒めそやされた。こんなことがあつ
たせいで…
- (26) …惨めな徒労であろう。すでに年甲斐もない私の行動が周囲に知らればじめ、もはや
引けない状態の今ごろになって… (「われらリフター」)

실제의 텍스트에 나타난 「非情物の 受動文」을 몇 개 제시해보았는데, 선행연구에 나타난 예문과 같이 單文으로 끝나는 「非情物の 受動文」은 그 숫자가 4 개에 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내에서 受動文이 사용되는 비율은 약 4%~18%라는 보고가 있지만¹¹⁾, 조사한 텍스트의 숫자를 생각하면, 그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10) 「非情物の 受動文」의 출현빈도와 텍스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여부는 앞으로 좀더 많은 텍스트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 단계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

11) T, Givon의 『On Understanding Grammar』, 1979, p.66~p.76 참조. 영어에서는 4%에서 18%의 비율로 受動文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의 종류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며 가령 스포츠기사의 경우는 그 비율이 낮은데에 비해 뉴스, 소설, 미소설의 순으로 높아지고 있다. T, Givon은 특히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受動文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非情物の 受動文」의 분포율을 생각하면, 일본어에서 非情物을 주어의 자리에 세우고, 有情物인 동작주를 「ニ」로 표현하는 「非情物の 受動文」 형식이 얼마나 일본어에서는 익숙한 표현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논의된 것처럼, 非情物 주어 수동표현이 일본어의 고유의 표현인지 아닌지 혹은 영어에서는 용인되는 「非情物の 受動文」이 일본어에서는 여러 제약이 따르고 그 수도 많지 않다는 사실이 논의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 「非情物の 受動文」이 전혀 일본어에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단문구조로 나타나는 「非情物の 受動文」이 그 수가 적을 뿐이고 상기의 예문(26)과 같이 복문구조의 종속절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하 몇 개의 복문구조의 종속절에 나타난 「非情物の 受動文」 예문을 제시한다.

(27) 子どもの欲望をコントロールする能力は、親に育てられて、親の与える環境によって 育つ。

(「人間の基本」)

(28) 彼の研究所は、数年前に研究が中断されたある技術に関するいくつかの工業所有権を もっていた。その技術はごく少数の研究者に進められて、技術者のあいだでもほとんど と伝説に近い、ごく少数のものしかその全貌を知らないものだった。(「太陽が山並 に沈むとき」)

(29) 真相はマスコミなどにかなり歪められて、国民に伝えられたようだった。(「太陽が山並に沈むとき」)

(30) …ニュートはグラント・マンソンによる、ライトが床の間の位置を暖炉に置き換えた という指摘を支持している。この点はさらに 向山にも確認されて、明らかになった。

(「日常生活の美学」)

(31) マグナ・カルタは、後に大法官エドワード・クックに新しい意味付けを与えられて、 重要な意味をもつようになった。しかし中世において、…。(「グリゴリの捕縛」)

이와 같이 實際의 텍스트에서는, 「非情物の 受動文」이 나타나는 것은, 단문구조가 아니고, 종속절에 들어가서 표현되는 복문구조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이 「非情物の 受動文」이 단문의 주절로 나타나는 것보다 복문의 종속절에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이유는 「ニ」로 표시되는 동작주의 「動作主性」의 강약과 관계가 깊다. 즉 受動文의 주어인 대상물에 미치는 동작주의 「動作主性」의 정도가, 단문과 복문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하 인지언어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 複文에 있어서의 節의 背景化와 前景化

지금까지의 형식주의의 입장에 서서 受動文을 고찰한 생성문법에서는 受動文의 의미나 기능 등에 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기저구조에 있는 능동문에서 표층구조에 있는 受動文으로의 생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하여 최근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이 외부의 사건·사물을 인지하고 그 것을 언어화할 때, 인간의 인지과정이 어떻게 작용하고 존재하는지에 대해 연구의 중심을 두고 있다.

受動文에 관한 연구도 이와 같아서, 能動文에서 受動文으로의 변환·생성의 구문적인 규칙보다는 受動文 형성에 관계하는 인간의 인지과정이나 受動文의 기능적·의미적인 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되고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受動文의 표현기능은, 受動文의 주어로 표현되는 명사의 「상태변화의 명시화」를 표현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여 지고 있다. 반면, 능동문의 표현기능은, 동작주의 대상물에 대한 「동작작용의 명시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受動文의 「상태변화의 명시화」라는 기능적인 특징과 더불어 도입해야할 인지언어학의 개념 중의 하나로 図(Figure)와 地(Ground)¹²⁾의 개념이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사람이 사물을 인지할 때에 사용하는 기본인지개념의 하나로, 図(Figure)와 地(Ground)를 들고 있다. 이 図(Figure)와 地(Ground)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하면, 「圖」는 인간이 사물을 인지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인지되는 것을 말하고, 「地」는 「圖」가 속해있는 배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식되는 사물과 그 사물을 둘러싼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圖」와 「地」의 개념은 인간의 지각레벨에서 뿐만 아니라, 보다 상위의 레벨에서도 유지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상위의 레벨이란, 인간이 사물을 인지할 때 인간이 사용하는 기본인지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이를 이용하여 언어로 표현할 때를 말하는 레벨 즉 기본인지개념의 다음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지각레벨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개념들은 그 다음 단계인 언어표현의 레벨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지각레벨의 여러 인지개념들이 언어표현의 레벨에서도 계속 유지되기에 이러한 개념들은 언어형식으로 표현된다.

가령, Talmy(1978)¹³⁾는 복문에 있어서의 「圖」와 「地」의 관계를 논하고 있고, 또한 Hopper(1979)¹⁴⁾에서는, 複文에 있어서의 주절과 종속절이 각각 「圖」와 「地」에 그대

12) 「Figure」와 「Ground」의 개념에 대한 용어로는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圖」와 「地」라는 용어를 차용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모습」과 「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3) Talmy, L., 「Figure and Ground in Complex Sentences.」 In Greenberg, J.H.(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Vol.4). Syntax』, Stanford Univ. press.625-49, 1978. p.632~ 640 참조.

14) Hopper, Paul J., 「Aspect and Foregrounding In Discourse」, 『Syntax and Semantics』Vol.

로 대응하여, 「理由」와 「条件」을 나타내는 절이 종속절에서 나타나고, 「結果」와 「帰結」을 나타내는 절이 주절로써 나타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理由」와 「条件」을 나타내는 절이 「結果」와 「帰結」을 나타내는 절의 배경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하 일본어의 「非情物の 二受動文」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기의 2절에서 「非情物の 二受動文」이 일본어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고,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언급하였는데, 이런 언어적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非情物の 二受動文」이 실제의 텍스트에서는 특히 「非情物の 二受動文」이 단문구조로 나타나기보다는 복문의 종속절에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령, 상기의 예문 중에서 「非情物の 二受動文」을 단문의 주절로 표현할 때의 허용도와 복문의 종속절에서 표현되었을 때의 허용도를 비교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문에서는 허용도가 낮아지는 문을 복문의 종속절로 돌려서 표현하고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결과부분을 복문의 주절의 술어로 나타내면, 그 문의 허용도는 한층 높아진다. 다음의 단문과 복문의 예를 참조하기 바란다.

- (32) 子どもの欲望をコントロールする能力は、親??に/によって育てられる。
 (32' (27)) 子どもの欲望をコントロールする能力は、親に育てられて、親の与える環境によって育つ。
 (33) その技術はごく少数の研究者??に/によって進められた。
 (33' (28)) その技術はごく少数の研究者に進められて、技術者のあいだでもほとんど伝説に近い、ごく少数のものしかその全貌を知らないものだった。
 (34) 真相はマスコミなど??に/によってかなり歪められた。
 (34' (29)) 真相はマスコミなどにかなり歪められて、国民に伝えられたようだった。
 (35) この点はさらに向山??に/によっても確認された。
 (35' (30)) この点はさらに向山にも確認されて、明らかになった。

이상의 예문을 살펴보면, 단문으로 표현된 「非情物の 二受動文」의 경우, 거의 허용도가 낮은 문이 되는 데에 반하여 이러한 단문형식의 「非情物の 二受動文」을 복문의 종속절에서 표현하고 대상물의 상태변화를 주절의 술어로 표현하면 허용도가 한층 높아지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⁵⁾. 예문 (32' ~ 35')의 밑줄이 쳐진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 주절의 술어로 표현됨에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2. Academic Press. 1979. p.226~p.238 참조.

15) 상기 예문에 대한 허용도의 판단은 일본인 화자 2명의 확인을 거쳤다. 다만 허용도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복문에서 허용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 형식에 따른 허용도의 차이에 대한 이유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상기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단문과 복문에서 수동문의 동작주가 주어인 대상물에 미치는 동작성의 강약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의 예문에서 단문의 경우 동작주의 표시 형태가 「ニヨッテ」의 경우는 허용되는 데에 반하여 「ニ」의 경우는 거의 비문에 가까워진다. 그러나 이러한 문이 복문의 종속절에서 표현될 경우 동작주 표시를 「ニ」로 취해도 단문에서와는 달리 그 허용도가 높아지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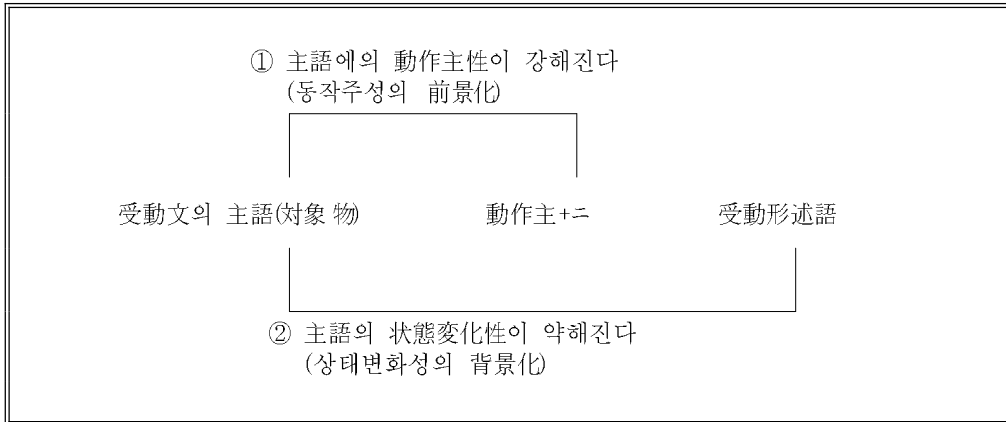
동작주 표시 형태인 「ニ」와 「ニヨッテ」의 차이에 대해서는 砂川(1984)에서 언급되었는데, 「ニ」는 「ニヨッテ」에 비해 동작주와 동작의 연결이 강하여 동작성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데에 반해, 「ニヨッテ」는 동작주의 동작성을 나타낸다고 보다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

단문에서 나타난 「非情物の二受動文」의 허용도가 낮아지는 이유로는 동작주의 동작성이 문의 전면에 나타남에 따라 대상물의 상태변화성이 문의 전면에 나타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수동문의 본래의 표현기능인 대상물의 상태변화성이 동작주의 동작성에 비하여 약하게 표현되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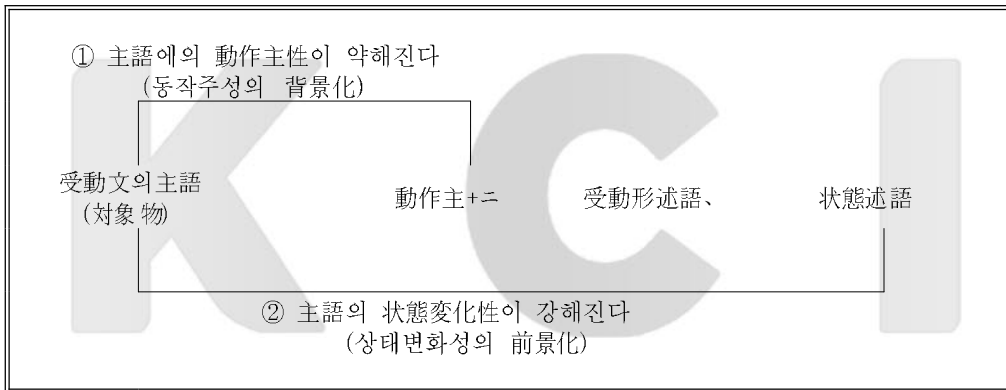
이와는 반대로 복문의 경우, 동작주의 표시형태를 「ニ」로 취해도 허용되어지는 것은, 「非情物の二受動文」이 종속절에서 표현됨으로 인하여, 단문의 경우와는 달리 동작주의 대상물에 대한 동작성이 문 전면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상물의 상태변화성이 주절의 술어로 표현되기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동작주의 동작성이 문의 전면에 나오지 못하고 배경화(Backgrounding)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주의 동작성이 배경화됨에 따라, 주절의 술어로 표현되는 대상물의 상태변화성이 문 전면에 나타나고 즉 대상물의 상태변화성이 전경화(Foregrounding)되기에 본래 수동문의 표현기능인 대상물의 상태변화성의 의미가 유지되어 복문에서는 「非情物の二受動文」이 단문보다는 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單文構造>



<複文構造>



여기에 구체적인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연체수식구에 나타나는 「非情物の 受動文」이다. 이하의 예를 참고하기 바란다.

(36) その社会集団が長い期間にわたって形成してきた性向というものを抜きにしては、成 立しない
ものであるといえます。この社会集団に通有された性向のことを「エートス (Ethos ギリシャ / ドイ
ツ 語 ethic 英語)」…。(「グリゴリの捕縛」)

(37) …すなわち商人に吸収される富は分業によって増大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グリ
ゴリの捕
縛」)

상기의 예문은 수동문의 비정물의 주어를 나머지 성분이 수식하는 구조의 형태이다. 즉 동작주와 수동형 술어로 구성된 연체수식구는 수식하는 명사에 동작주성을 「前景化」하여 수식한다고 하기보다는 수식하는 명사의 특징을 규정하는 언어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상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기에, 동작주의 동작주성이 배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예문도 다수 발견된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연체수식구 형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끝맺음

이상의 논의에서 잠정적으로, 일본어의 「非情物の 受動文」은 동작주의 동작성과 대상물의 상태변화성의 상호대응관계에 따라 단문보다는 복문의 종속절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언어학의 기본개념인 「圖」와 「地」, 「前景化」와 「背景化」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어의 경우, 受動文의 본래 기능인 「대상물의 상태변화」의 의미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고, 일본어의 상태표현 지향의 경향이 受動文의 사용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있는 것 같다. 즉 단문의 경우, 동작주의 前景化에 동반하여 대상물에서의 작용력이 강해져 受動文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단문구조가 아닌 복문구조에서 표현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에 비해 상기에서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영어의 경우는 受動文의 「Dynamic化」가 지적되고 있다¹⁶⁾. 고대영어에서는 受動文은 주로 狀態變化表現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점점 현대에 이르러 受動文이 Dynamid化하여, 受動文에 대한 제약이 약해져서 심지어 보통 수동화되지 않는다고 말하여지는 「resemble」 등도 受動文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38) Geoffrey is resembled by his eldest child.

이와 같이 영어의 경우는 동작주의 대상물에서의 동작주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 데에 비해, 일본어의 경우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수동문의 본래의 기능인 상태표현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흔히 영어와 일본어를 「する言語」와 「なる言語」로 말하고 있는데, 동작지향의 영어와 상태지향의 일본어의 경향이 상기의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실례의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할 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 싶다.

【參考文獻】

16) Terasawa, J., 「The Passive as a Perfect in Old English」, in Yamanaka, K.&Ohori, T.(eds.), 『The Locus of Meaning: Papers in Honor of Yoshihiko Ikegami』, Kuroshio Publishers, 1997.

- 金水敏(1991) 「受動文の歴史についての 一考察」, 『国語学』 164:1-14.
- 久野 暉(1983), 『新日本文法研究』, 大修館 書店.
- 砂川有理子(1984) 「<に受身文>と<によって受身文>」, 『日本語学』 vol.3, no.7 : 76~87.
- 高見健一(1995) 『機能的構文論による日英語比較』, くろしお出版
- 益岡隆志(1982) 「日本語受動文の意味分析」, 『言語研究』 82.
- ——(1987) 『命題の文法』, くろしお出版
- Givon, T.(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Academic Press.
- Hopper, Paul J.(1979) 「Aspect and Foregrounding In Discourse」, 『Syntax and Semantics』 Vol. 12. Academic Press. p.213~241.
- Talmy. L.(1978) 「Figure and Ground in Complex Sentences.」 In Greenberg,J.H.(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Vol.4).Syntax』, Stanford Univ. Press. 625-49.
- Terasawa, J.(1997) 「The Passive as a Perfect in Old English」, in Yamanaka, K.&Otori, T.(eds.), 『The Locus of Meaning: Papers in Honor of Yoshihiko Ikegami』, Kuroshio Publishers

<예문인용 작품>

1. 『グリゴリの捕縛 -あるいは 情報時代の憲法について-』, 白田秀彰 青空 文庫版 2001.
2. 『われらリフター』, 佐野良二, 近代文芸社, 1993.
3. 『闇の力』, 構想社, 佐野良二, 1996.
4. 『人間の基本』, 桑原 一世, 青空 文庫版, 1998.
5. 『太陽が山並に洗むとき』, 弾 射音, 青空 文庫版, 1998.

普通、英語では許容されるような非情物主語の受身文は、日本語においては英語ほど頻繁には使われていないのが現状である。本稿では、受動文の主語に非情物がたつて、動作主が「二」でマークされる本稿で言う「非情の二受身文」を考察対象にして、日本語における「非情の二受身文」の実際のテキストでの分布及びその現われる構文環境について考察した。

日本語においてどうもすわりの悪いように思われる「非情の二受身文」の実際のテキストでの分布は、単文構造ではほとんど現われない傾向を見せた。多くの「非情の二受身文」の例ほとんどが複文構造の従属節のなかで現われる傾向を見せている。また連帯修飾節としても多現われた。

このような傾向に対する原因として考えられるのは、「非情の二受身文」における動作主の働き掛け性の強弱と対象物の状態変化性の強弱が連動しているところに起因すると見られる。このような働き掛け性・状態変化性の強弱は認知言語学の用語を借りれば、「前景化」と「背景化」になると思われる。つまり、単文では「二」でマークされる動作主の働き掛け性が「前景化」され対象物の状態変化性が「背景化」されることにより、本来の受身文の表現機能である「状態変化表現の明示化」がうまく機能できなくなるので、不自然か非文になると考えられる。これに対して、複文の中の従属節では、「二」でマークされる動作主の働き掛け性が「前景化」されずそのまま背景化されるままになって、対象物の状態変化の意味が前景化され、「状態変化表現の明示化」が機能できるからであると思う。

英語は受動文が状態変化表現機能からダイナミック化に進む反面、日本語は受動文の本来の表現機能である「状態変化表現の明示化」がまだ保持されており、暫定的に受動文において日本語における状態表現指向の傾向が確認されたと思う。

キーワード：非情物主語受動文，動作主マーカ「二」，状態変化意味の明示化，
認知言語学，前景化，背景化

투 고 : 2003. 5. 31
2차 심사 : 2003. 6. 11
3차 심사 : 2003. 7. 8

住 所: 320 - 711 충남 논산시 내동 26 건양대학교
電 話: 041-730-5159, 016-9559-6561
E-mail : dct@konyang.ac.kr